
후외방도달법에 의한 족관절 삼과골절에서 후과골절의 치료 - 예비보고 -

Treatment of the Posterior Lip Fracture of Trimalleolar Fracture Using Posterolateral Approach - Preliminary Report -

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이준영 · 하상호 · 이상준

❖ 서론

족관절 삼과골절에서 후과 골절편의 고정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골절의 크기가 관절면의 25%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후외방도달법에 의한 정복 및 내고정으로 치료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❖ 대상 및 방법

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족관절 삼과골절로서 본원에서 수술한 27예 중 후외방 접근법을 이용한, 최소 6개월 이상, 추시 가능한 5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평균 추시 기간은 20 (6-36)개월, 평균 연령은 47.6 (16-64)세였고, 남자가 3예, 여자가 2예였다. 골절의 양상은 로우지-한센 분류법과, 데니스-웨버 분류법을 사용하였으며, 수술 후 골유합 기간, 후과골편의 관절면 침범 정도와 전위 정도 및 위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. 추시상 기능적 평가는 AOFAS 점수를 사용하였으며, 그 외 임상적 평가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.

❖ 결과

모든 예에서 일차적인 골유합을 얻었으며, 골유합 기간은 평균 2.9 (2-3.5)개월, 로우지-한센 분류상 회외외회전 손상이 5예, 데니스-웨버 분류상 B형이 5예였다. 2예에서 2 mm 이상 후과 골편의 전위를 보였고, 후외측으로 전위된 경우가 4예였으며, 관절면의 25-35%를 침범한 경우가 3예에서 관찰되었다. 합병증으로 표재성 피부감염이 1예에서 관찰되었으며, AOFAS 점수상 평균 95.4점으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.

❖ 결론

족관절 삼과골절에서 후과 골절편에 대한 관절면의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은 수술 후 임상적 결과에 중요한 인자이다. 따라서 큰 골절편을 갖는 족관절 후과골절에서 후외방도달법을 이용한 관절적 정복 및 고정방법은 후과골편의 해부학적 정복이 가능하며, 족관절 외과부 골절의 정복 및 고정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 중의 하나로 사료된다.

색인단어 | 족관절, 관절면, 후과골절, 후외방도달법